

아프리카 에이즈관련기관 탐방기

사랑과 희망을 빼앗긴 채

고통받는 에이즈베이비(1)



유미해 | 구세군 사관
1985년 미국 뉴욕 구세군 시관학교 졸업
1991~1994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구세군 한인 영문 담임 목회
1998년~ 현재 구세군 에이즈 예방사업단 담당관

본 탐방기는 2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2001년 3월 13일, 구세군 에이즈 예방 사업단의 다른 2명의 동료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방문한 때는 화창하게 개어 있는 이른 아침.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BMW나 벤츠를 타고 출근하는 백인들과 트럭에 한꺼번에 짐짝처럼 실려 바람을 맞으며 일터로 향하는 어두운 표정의 흑인들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우리 일행은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한 시설을 방문하는 길에 올랐다. 그곳은 HIV에 감염된 임산부로부터 출산된 아기들을 돌보는 구세군 시설로서 Ethembeny House 즉 "희망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곳이었다.

>> 희망의 집(Ethembeny House)

2층으로 이루어진 본 시설에는 약 60여명 정도 1~2세 정도의 아기가 각 방에 나뉘어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는 보통 산모가 가지고 있던 항체가 남아있기에 이들을 돌보면서 1년 또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HIV항체반응에 음성으로 돌아서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곳이었다. 처음 들어간 방에서 우린 2세 된 아기를 볼 수 있었다. 난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2세라면 당

연히 걷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인데 이 아기는 이미 에이즈로 전환이 되어 병 증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였고 몸의 성장 상태는 마치 7-8개월 정도의 아기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마와 피부 전반에 피고름이 섞인 종기가 두드러기처럼 돌아 있었고, 고통스러운지 계속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다. 팔과 다리는 부러질까 무서울 정도로 가녀린 상태였고 쩡그린 얼굴로 아픔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 아기는 무슨 운명을 타고 난 것일까? 왜 이토록 소중한 한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기를 전적으로 맡아 돌보는 자원봉사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며 마치 자신의 아기를 사랑하듯 보듬어 안아 주는 모습이었다. 다른 방에서도 요하네스버그의 여러 대학에서 자원봉사자나 나온 대학생들이 에이즈로 전환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함께 놀아주며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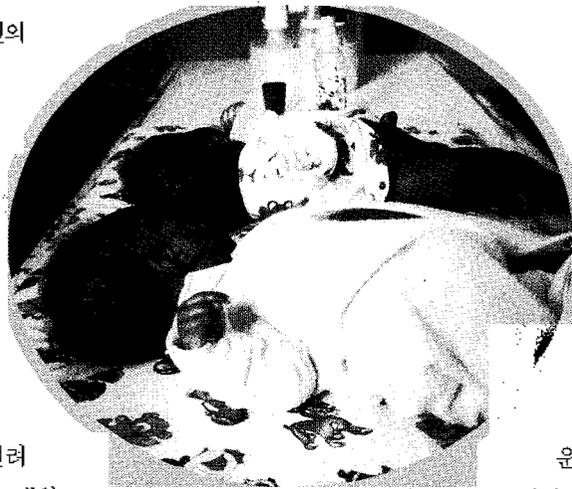
복도를 따라 가는 길에 자신의 아기와 함께 이 시설에서 살면서 아기를 돌보는 한 HIV 감염인 산모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앞날 보다는 아기에게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욱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말해주었다. 본 시설의 예배실에는 그간 이 시설에서 세상을 떠난 아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생후 1년 2개월, 생후 7개월, 생후 2년 3개월... 사진 속의 아기들은 그래도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최근 성인 인구 (15세~49세)가운데 5명당 1명이 HIV에 감염되어 있다는 통계를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여성의 감염률이 매우 높기에 속칭 에이즈 배이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원장의 말을 들으며 이 시설을 떠나는 나의 마음에는 나의 조국의 아기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 에이즈 고아들을 위한 보육 시설

두 번째로 인상깊었던 방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차별주의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흑인 밀집 거주지역인 SOWETO 지역 내 에이즈로 사망한 부모로부터 남겨진 고아들을 맡아 기르는 구세군의 한 보육 시설을 찾은 것이다. 이 시설에는 4세 이상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연령의 청소년을 돌보고 있었다.



**처음 들어간 방에서
우리 2세 된 아기를
볼 수 있었다.
난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2세라면 당연히 걷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인데 이 아기는
이미 에이즈로
전환이 되어
병 증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였고 몸의
성장 상태는
마치 7-8개월 정도의
아기로부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본 시설에서 속칭 에이즈 고아들을 일 반적으로 버려진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들과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시설 내에 학교를 설치해놓고 일반 지역 학교에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에이즈 고아들, 또는 그 가운데 섞여있는 HIV감염 아동들에게 유치원 및 초등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은 아프리카가 얼마나 에이즈의 심각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우리 일행은 쇼콜렛 빛 피부에 눈이 커다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들로부터 가정을 빼앗아 가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기회를 앗아간 에이즈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SOWETO 지역 내에서 우리 일행은 마치 성냥꽂처럼 다닥다닥 붙은 양철집들로 이루어진 슬럼가 속으로 들어갔다. 길은 온통 번지와 진창과 그리고 쓰레기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일이 없어 대부분 집밖에서 공허한 눈빛으로 앉아있던가 아니면 끼리끼리 잠담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집은 약 3평 정도의 양철집이었다. 진흙 바닥 위에 작은 침대하나, 붉은 빛이 도는 흙탕물 속에 담겨있는 그릇들, 그리고 절레를 연상시키는 기저귀를 차고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수직 감염된 에이즈에어비를 돌보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요하네스버그)



베레사 센터 - HIV 감염 여성들을 위한 수직사업(에이즈 퀴인 만들기)

곧 약 20세 정도의 젊은 여인이 심한 호흡곤란을 겪는 듯한 상태로 집안으로 들어왔다. 에이즈환자였다. 그리고 바닥에서 울고 있는 아이도 감염이 된 상태라 했다.

집안에는 먹을 것이라곤 도둑 눈에 뜨이지 않았다. (O)이 넘은 듯한 노모가 함께 살면서 가끔 가정부일을 해서 식품을 구입하고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굶는 다고 하였다. 물론 약을 먹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다. 여인이 HIV양성이라는 것이 판명되자 남편은 그날로 여인을 버렸다고 했다. 그 남편이 감염의 원인제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빈민가의 감염인들은 약은커녕 당장의 배고픔도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토록 감염인이 주변에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서로 아직도 쉬쉬하며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사회적인 소외가 존재하고 두려운 까닭이리라.

>> 치칸카타의 구세군 병원 - 잠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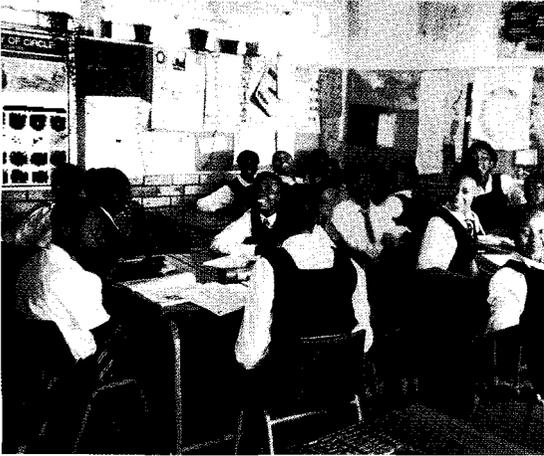
요하네스버그를 떠나 우리 일행은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로 향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잠비아는 푸른 녹색의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무척 아름다웠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루사카 시내로 가기까지 우리는 빈곤의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눈

을 돌리는 곳마다 빈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잠비아는 HIV감염인 수를 성인인구 7명중 1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다. 우리는 곧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에이즈 전문 병원이 있는 치칸카타라는 농촌 마을로 향했다.

치칸카타의 구세군 병원 입구에 들어서면서 나는 에이즈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 병원이 있는 마을 입구에는 환자들의 가족들이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나 식당, 가게 등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거리에 서있거나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공허함 그 자체였다.

이미 포기에 가까운 표정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아주머니들의 등에 얹혀 있는 아이들 중에는 마치 HIV감염 아동인 듯 한 아이들도 있었다. 힘없이 엎혀 있는 그들의 얼굴에 파리 떼가 대들어도 그 파리떼를 쫓을 힘조차도 없는 채 강마른 어깨를 드러내놓은 아기들...

얼굴이나 머리칼만 보아도 이젠 에이즈 환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한 상점주인의 고백이 마치 온 동네를 에이즈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한 아주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자신의 남동생도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베네수엘라 센터 - 에이즈 고아 및 지역사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구세군 학교내 모습



차킨카타 - 에이즈 병원내 병실

하지만 남자들이 도무지 변하려들지 않는다는 한탄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병원을 견학하는 중, 말기환자들이 누워있는 병동을 지나면서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았다. 에이즈는 그냥 질병이 아니었다. 인간을 가장 고통한 상태로 몰아가면서 그 존엄성을 빼앗아 가는 그런 질병이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는 여러 선교사들과 외국에서 들어와 수고하고 있는 의사 및 간호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거의가 에이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리고 마을에는 고아들이 넘쳐 나서 마을 사람들이 그 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다. 자신들도 먹고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생겨난 몇 백명의 고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에 이들의 학비와 의식주 문제를 위해 위원회에서 기부도 받고 수익사업도 하고 있지만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설명을 하던 위원회의 위원장의 눈빛에 이슬이 비치고 있었다.

>> 방문간호팀(Care & Prevention Team)

본 지역에서는 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병원의 병상수도 부족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들은 집에서 생

을 마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 스텝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하는 재도가 생겼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태였고, 그래서 이곳 지역사회들은 각 마을마다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팀을 구성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었다.

바로 CARE & Prevention Team 즉 CPT 개념이었다. 농경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는 매우 강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에이즈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교사, 의사, 간호사, 또는 뜻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자원해서 CPT를 구성하여 마을내의 에이즈 환자와 에이즈 고아들을 돌아보고 있었다.

이미 정부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가 아닌까 싶었고 또한 국가 자체가 너무나 빈곤한 상태요, 부는 일부 정치인이나 부유계층에서 독점하였기에 대다수의 국민은 극심한 빈곤과 실업상태에서 에이즈에 맞서 싸울 힘을 내기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을을 구하겠다고 예방과 간호를 위해 스스로 나서는 잠비아 인들에게서 나는 진한 감동을 느꼈다.

(다음 호에 계속)